



중동 변수 대응  
비상경제 TF 회의

전북도는 7일 김인태 기업유지지원실장 주재로 도·시군 합동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민생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물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사진=전북자치도>

# 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 불거져 전북지사 경선판 또 격랑

김지사 제명 이어 연쇄 금전 논란  
안호영 "원칙 동일 적용해야"  
민중중앙당 차원 진상조사 촉구  
이원택 "허위보도...법적 대응"

김관영 도지사의 대리비 의혹으로 한 차례 격랑을 휩쓸던 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 구도가 이번에는 이원택 경선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안호영 경선 후보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모 매체 보도(4월 7일, '단독' 이원택 전북지사 경선 후보자, 식사·음주 비용 일체 제3자 대납 의혹 불거져)에 따르면, 이원택 후보와 관련해 식사·음주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해당 비용은 김제·부안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

원이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보도 내용만으로도 도민들께서 느끼는 우려와 문제의식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제한 뒤 "전북은 이미 김관영 지사의 대리비 논란으로 비상징계와 제명, 수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점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의혹을 넘어, 정치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다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거과정에서의 기부행위 또는 부적절한 비용 처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성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원택 후보는 도민 앞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또한 민주당 역시 앞선 사안에서 보여준 기준과 원칙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앙당 차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는 신뢰 위에서 있고 그 신뢰는, 일관된 기준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택 경선후보는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 간담회였고 제가 개최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리로 저의 개인 식사 비용 또한 직접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저는 이 간담회 자리가 완전히 해산되기 전에 먼저 이석했고,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비용 지불 등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기본적인 저의 입장이나 사실 확인조차 되

지 않은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도, 면세유 보조금 앞당겨 지급 영농 시기 맞춰 농가 부담 완화

11월→5월 앞당겨 상반기 우선 지원  
17억 투입 유가 급등 대응  
사용량 기준 지원 농가당 최대 1만 l  
15일 신청 접수 22일부터 순차 지급

전북도는 도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7억 3,000만 원 규모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지급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5월로 앞당겨 조기 집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상반기 영농 시기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6개월분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말에 일괄 지급해 농가가 유가 상승 부담을 선제적으로 떠안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유가 급등 시기에 맞춰 상반기에 먼저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영농 시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원이 이뤄져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까지 면세유 구매카드를 통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도내 농업인이다.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

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5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은 최근 1년간 사용량의 50%를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의 4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농가당 최대 1만 리터까지 가능하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휘발유 19원, 경유 20원, 등유 26원, 중유 53원, LPG(차량) 28원, LPG(난방) 54원, 부생연료유 52원이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돼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으며, 지원 규모와 단가는 도와 도의회,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된다.

도는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조기 지원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 전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 355억 투자 유치

(주)신비바이오와 협약 체결  
생산시설 구축 140명 신규 고용  
분양률 80%...기업 유입 증가세  
사업 2단계 확대 고도화 추진

전북도는 7일 익산시,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주)신비바이오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신비바이오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355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14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선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현을 익산시 시장, 김덕호 식품진흥원 이사장, 강병수 (주)신비바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도와 익산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식품진흥원은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맡아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2026년 들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체결된 다섯 번째 투자협약으로, 식품기업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도는 7일 익산시, (주)신비바이오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355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생산, 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식품산업 집적지로, 현재 분양률이 약 80%에 도달하는 등 기업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단계 확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한 상황으로, 도는 농식품부, 익산시와 함께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사업을 통해 대체 단백질 중심의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식품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확대해 K-푸드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선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주)신비바이오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증가하는 기업 수요에 대응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부름부름~ 마을 잇고, 길을 연결합니다

# 완주 마을버스

## “전북 최초 완전 공영제(공영버스) 시행”

» 주민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 마을요구에 맞춰 노선 및 시간을 운행해요
- 전에 없던 작은 마을안까지 운행해요

» 누구나 500원, 저렴합니다

- 주민들의 교통비용이 감소해요
- 무료환승 가능해요

» 친절하게 모십니다

- 공공기관(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요
- 우리동네 주민이 친절하게 운전해요

» 안정적으로 운행합니다

- 더 이상 파업은 안돼요
- 빼먹거나 빨리 출발 안해요

» '부름부름~'마을 구축구석을 누벼요!

13개 읍면 모두 운행(46대, 63개 노선, 운전원106명)  
\*고산북부권 운행 예정('26년 3월 30일)

마을버스 문의처 : 완주군시설관리공단 063-270-9908, 9915

동네를 구비구비~ 부름부름  
완주마을버스  
업무표준등록(2017.8.4)

# 전북도 '찾아가는 발굴'...위기아동·청년 지원 강화

### 영케어러·고립청년맞춤 지원 강화 민관 합동 위기 발굴 체계 다각화 자기돌봄·사회복귀 등 단계별 지원 11개 기초 청년센터 사례관리 협력

전북도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년)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해 "위기아동·청년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3월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전북은 이미 2024년 8월부터 추진해 온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의 노하우를 결합해 가장 촘촘한 안

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발굴'로 전환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발굴 체계를 다각화한다.

위기아동·청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 관계자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발굴을 강화한다.

또 읍면동 방문을 주저하는 세대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창구 '청년ON'을 활성화하고, 2027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 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은 위기 유형에 따라 두 축으로 나뉜다.

가족돌봄 청(소)년(13~34세)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지원과 사례관리, 돌봄비용 경감(5%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고립 은둔 척도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전북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8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780여 명의 위기 청년에게 약 13억 5,700만 원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의 전국적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또 점수에 위치한 청년미래센터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청년들을 위해 도내 11개 기초 청년센터와 공간 공유 및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는 '순회 프로그

램'을 운영함으로써 시군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연령 변화나 상황 개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고립을 예방하고, 아동·청년 지원체계를 통합해 34세까지 단절 없는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전북형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기관 및 기업 등 외부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장은 "가족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북의 경협을 바탕으로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사진=이원택의원실>

## 이원택, 전북 대전환 7대 프로젝트 발표

### 재생에너지·미래산업 육성 지역 중심 '내발적 발전 전환' 도민 소득 햇빛·바람 연금도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7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전북 만들기 준비서"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 산업 육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북 대전환 7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북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진단하며, 기존의 외부 의존형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부 투자에 의존한 낡은 발전 방식으로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북 내부의 자산과 역량을 중심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설계한 공약은 오랜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실행 가능한 설계"라며 "김관영 도정의 성과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더하면 완전히 새로운 전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전북 만들기 핵심 공약으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도민 가계 소득을 직접 높이는 '햇빛·바람 연금도시' 조성이 우선 제시됐다.

이 의원은 "3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그 수익을 기금화해 도민들에게 연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

하고, 농촌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 과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정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1천억 원 규모의 '전북형 스타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5조 원 규모의 미래성장 펀드와 15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를 의무화해 성장의 과실이 지역 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역 자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공동물류센터 구축과 저금리 대환대출, 공공 배달업 도입 등도 마련했다. 또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전북을 '국제에너지 자유무역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RE100 산업단지 조성하고 함께 피지컬 AI, 그린수소, 농생명·식품 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배후 부지를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신항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하는 '푸드벨트'를 구축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또한 체육과 문화 관광분야로 '전북 1시간 생활권'을 위해 전라선민 가계 소득을 직접 높이는 '햇빛·바람 연금도시' 조성이 우선 제시됐다.

이 의원은 "도민들과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지지만이 전북 대전환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안호영, 전북 미래 '8대 비전·48개 공약' 전면 공개

### "김관영 성과에 안호영 구상 더해" 반도체·재생에너지 핵심 전략 제시 교통·AI·농생명 전북 미래 청사진 시군 광역체계 균형발전 구조 설계



안호영 의원

도체 클러스터 전북 배지 ②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③새만금 AI·반도체 수반도시 ④새만금 영농형 태양광 3GW신설 ⑤새만금 재생에너지 (풍력·조력·수상 태양광) 12GW 추가 확대 ⑥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전주(전력반도체) 포함을 추진한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는 전북을 앞으로 보낼 것인가, 정치에 묶여둘 것인가의 선택"이라며 "김관영 도정 성과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더해 안호영이 준비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제시한 8대 비전은 ▲반도체 전북 ▲전북형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중부권 시대 도약 ▲전북 30분 통합 생활권 교통망 ▲AI·기반사회 선도 도시 ▲한류특별시 전북 ▲농생명산업경제 구축 ▲전북형 광역정부 체제 구축이다. 또 각 비전별 총 48개의 대표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반도체 전북'을 위해 ①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배지 ②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③새만금 AI·반도체 수반도시 ④새만금 영농형 태양광 3GW신설 ⑤새만금 재생에너지 (풍력·조력·수상 태양광) 12GW 추가 확대 ⑥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전주(전력반도체) 포함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순환경제'는 ①에너지 자립률 200% ②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③분산에너지 특구(새만금·내륙·④재생에너지 투자 도민성장펀드 조성 ⑤햇빛연금마을 1,000개 조성 ⑥RE100 산단·농공단지 조성 ⑦전북재생에너지 공사 설립으로 구현한다.

'중부권 시대'는 ①호남선(익산-세종) 직선화 ②익산 연계 서해안 철도 ③완주-세종·군산-논산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은 ①수도권 GTX급 JBX 광역급행철도(새만금-전주-남원) ②BRT ③DRT로 완성

한다.

또한 'AI·기반사회' 선도를 위해 ①KAIST 남원 AI 공공의료캡처스 조성 ②피지컬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로봇·모빌리티 산업 육성 ③농기계·자동차·조선 산업의 AX ④전북 아이 미래 기본펀드 조성 ⑤청년 창업 1,000개 프로젝트 추진 ⑥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추진한다.

'한류특별시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①국립 K-전통문화 디자인 센터 ②전북 K-라이프스타일 3대(Living·Food Kit·Style) 명품화 사업 ③14개 시군 연계 K-푸드·장류, K-소리·공예, K웰니스·힐링 벨트 구축 ④K-컬처 벤처기업 및 투자 펀드 조성 ⑤한옥·구도심 K-레지던시 ⑥월드 뮤직 어워드(WMA) 전용 아레나 건설로 추진한다.

'농생명산업경제'는 ①농생명 4차 산업혁명 단지 조성 ②농생명 AI·데이터 센터 설립 ③농생명 산업 특화 밸리(금융·벤처기업) 조성 ④AI농기계·농업로봇 실증단지 운영 ⑤K-농업 시스템(농기계·농업로봇·스마트팜) 수출 ⑥마을 공유형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팜 조성

⑦영농형 태양광 확대 ⑧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⑨AI 농부 양성이다.

마지막으로 '전북형 광역정부 체제'는 ①14개 시군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②중추도사권(전주·완주·익산)·피지컬 AI·금융·행정·연구 ③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재생에너지·반도체·AI·물류·첨단산업 ④동부권(무주·진안·장수)·휴양·치유·건강·산악·관광 ⑤서남권(정읍·고창·임실·순창·남원)·그린바이오·미생물·전력산업·식품·치즈·K-푸드(장류) ⑥초광역협력(지리산권·덕유산권·대둔산권) 특별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87지 비전과 48개 대표 공약 외에 '작지만 중요한 공약'으로 ①개발형 공공 예술수장고 조성 ②반려동물 도립·군립 공원 동반 출입도 포함되어 있다.

안 의원은 "전북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설계한 공약은 오랜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실행 가능한 설계"라며 "김관영 도정의 성과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더하면 완전히 새로운 전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윤준병, '음주운행 처벌 기준 일원화법' 발의

### "해상 음주운행 5년간 350명 적발" 법률 기준 통합·처벌 혼선 해소 5톤 미만 소형 선박도 처벌 강화



윤준병 의원

향 관련 법률의 상이한 처벌 기준을 일원화하는 '음주운행 처벌 기준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조종하거나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이 350명에 달하지만, 선박 음주운행 처벌과 관련된 법률들은 처벌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음주운행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과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처벌 기준을 통합하고, 특히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톤 이상 선박 기준에 맞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해상 음주운행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기준을 통일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운전 중 졸음이 올 때 당신의 대처 방법은?

후려 상피관 공개  
창문 열어 환기하기

장비 운전 필수임!  
깜빡기

워니 워니 해도 자는 게 최고!  
졸음 쉼터

우리가 어떤 민족? 흥의 민족!  
노래 부르기

# 전주시 차량 2부제 본격 시행

## 4월 8일 0시부터 실시 3회 적발 징계조치 추진

최근 중동지역 불안에 의한 정부 자원 안보위기는 '경계'로 격상됐다. 이에 전주시는 공공기관 직원 차량 기존 5부제에서 한층 강화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차량 2부제 시행은 4월 8일 0시부터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35개 동 주민센터

등 전주시 출원기관에 한해 진행된다. 아울러 시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요일제)'가 도입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시청과 구청·출원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차량 2부제는 날짜의 홀짝수와 자동차 번호 끝자리를 맞춰 운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특히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2부제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3회 적발 시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승용차(10인승 이하)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돼 요일별로 지정된 차량 끝자리 번호는 해당 주차장에 진입 및 주차가 금지된다. 반면 전통시장과 한옥마을, 동물원 주차장 등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 곳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감안해 이번 의무 규제에서 제외된다. /김영태 기자

더불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긴급 자동차 및 보도용 자동차 등 취약계층과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에 대해서도 이번 2부제 및 5부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은 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지표투과레이더'로 선제적 지반 침하 예방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22년~올해까지 GPR 탐사 추진 노후 하수관로 확인·복구 실시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김인택 본부장은 도심지 지반 침하 사고 선제적 대응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한 5개년 GPR 탐사가 올해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이하 GPR) 탐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시가 도입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표면 아래로 레이더파를 투사해 지하 객체를 조사하는 비파괴 진단 기술이다. 이 탐사 기술을 활용하면 주로 노후 하수관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동을 정밀하

게 탐지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지반 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총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경 500mm 이상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전주시역 도로 577km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지난해 추진된 서신·중

양·진북·팔복동 일원 223.92km를 포함해 총 475km에 대한 탐사를 완료했다.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팔복동과 삼전동, 호성동 일대의 하수관로 102km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탐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동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 작업을 실시해 사고 위험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안전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약수터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만전

전주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하수도본부는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오래전부터 동서학동 좁은목약수터와 완산칠봉약수터 등 2곳을 먹는물관리법에 의거해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

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두곳은 하루 평균 각각 300여명과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또 도심 외곽 지역과 고지대 등 상수도를 공급하기 어려운 곳에 지하수 등을 취수에 사용하는 간이급수시설도 중이동원중간·도계마을과 평화동 작지마을, 노송동 마당재 등 4개 마을에 설치돼 있다.

이들 4개 마을에서는 101세대 145명 정도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시는 수도법에 의거해 시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의 경우 일반상수도 시설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매월·분기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시행하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이와 함께 시는 과거에 비해 유출량이 적고 시설물이 노후화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좁은목약수터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총 6000만원을 투입해 내부 배관과 파고라 등을 교체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보건소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 실시

## 관내 요양병원 23개소 총 1200명 대상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에 의한 급·만성 간질환으로서 아직까지도 예방 백신이 없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50대 이상 전주시민과 C형간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 전주시역 23개 요양병원 의료종사자 등 총 1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항체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C형간염은 주로 주사기 재사용과 수혈, 성접촉, 오염된 기구 이용한 △문신 △피어싱에 의해 전파되며 무증상이 대부분이다. 일부 환자에게는 피로와 오심,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C형간염은 적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간경변증과 간암 등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최근에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완치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바늘 등으로 혈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감염 취약 대상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검사하기 위해 전주시역 23개소 요양병원을 방문해 항체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혈액매개감염병 예방 위한 교육 및 노출 후 관리 등 감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보건소는 무료항체검사 결과를 익일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양성자에게는 C형간염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추가로 안내하는 등 검사 및 치료 독려로 시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환경청 '에너지·환경 업무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환경정화활동 줄기캠페인 추진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7일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관내 에너지·환경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도내 에너지 분야 기관과 환경 분야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전북본부)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 △한국환경공단(전북환경본부) △한국수자원공사(금강유역본



부) △한국환경보전원(호남지사) △국립공원공단(서부지역본부, 변산반도생태탐방원) 등 8개 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기관별 에너지 절약 방안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실천·홍보 △협력방안 등이다. 한편 참석한 8개 기관은 변산반도 해변 일대에서 방치된 쓰레기 등을 수거(줄기 캠페인)하며 환경정화 활동 참여 의지를 다졌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초·중·고등학생 맞춤형 안전교육

## 신학기 맞춤형 교육 추진 디지털로 배우는 '소방안전교육 멀티미디어북' 홍보

전주덕진소방서 권기현 서장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입학생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신학기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권 서장의 교육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입학생들이 일상 속 위험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 맞춤형 안전문화 정착'이 핵심이다. 특히 전주덕진소방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은 지난해 동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29개교(전체 36개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맞춤형 교육은 총 4233명의 학생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수칙을 익히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참여가 되고 있다. '신학기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에서는 소방관이 직접 전하는 '나를 지키는 안전수칙' 화재예방교육 및 전북소방 캐릭터 '일구와 함께하는 소방안전상식' 콘텐츠 등이 활용된다. 주요 내용은 △119 신고 및 소화기 사용법 △화재 등 유사시 피난 대피 요령 △등·하교 시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입체적 교육이다. 이와 함께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한 '디지털 세대' 아이들을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 멀티미디어북' 홍보도 병행한다. 멀티미디어북은 소방청 소방안전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화재안전(대피·진압·예방) △응급처치(심폐소생술·하임리히법 등) 총 7종의 콘텐츠를 담고 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듣고 직접 조작할 수 있어 교육 몰입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권기현 덕진소방서장의 '신학기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은 4월 중순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 권역 내 감염병 대응 역량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진=전북대병원>

# 전북대병원 권역 내 감염병 대응 현장 밀착 지원

## 전북권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전북대학교병원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 권역 내 감염병 대응 역량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감염병 대응 현장 밀착 지원은 '공공보건 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전북 권역 감염관리 역량강화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권역내 요양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대응 방안 중심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전북대병원 방문컨설팅은 전북대병원 공공의료과와 피부과 주 관으로 4월 7일 효사랑가족요양병원·효사랑전주요양병원·김제가족사

랑요양병원 의료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 및 컨설팅은 고령 환자가 많아 감염병 피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솔루션으로 제공 됐다. 전북대병원 피부과 박진 교수가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1부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실시간 임상 진단 △검체 채취 시연 △현장 피드백 등 생생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감염성 질환의 역학적 특성 △최신 치료 가이드라인 △화산병을 위한 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실시됐다. /정소민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현장 점검

## 화재 취약요인 선제 차단

박덕규 완산소방서장은 7일 전주한옥마을 일대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찾아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하는 현장방문 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숙박시설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점검에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피난·방화시설 확보 여부, 관계자 초기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목조건축물이 밀집한 한옥마을 특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급

한 연소 확대 가능성을 설명하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서장은 관내 공사장을 방문해 화재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가연물 관리 상태,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에 불철 건조한 기후 속 화재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완산소방서는 화재취약 대상에 대한 현장 중심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신충식 예수병원장 "현장 목소리에 답 있다!"

## '소통 라운딩' 직접 순회 소통 현신하는 직원 노고 격려

전주 예수병원 신충식 병원장이 '현장 소통 라운딩'을 이끌며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병원 '현장 소통 라운딩'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병원 경영과 근무 환경 개선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신 병원장은 입원 병동과 외래 진료실, 간호 스테이션, 진료 지원 부서, 행정 부서 등 병원 곳곳을 차례로 순회했다.

신 병원장은 현장 실무에서 붙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은 평소 전하기 어려웠던 현장의 고충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자유롭게 말했다. 신 병원장은 직원들의 소리에 주의 깊게 경청했다. 이후 현장의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신충식 병원장은 "전주 예수병원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역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으며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땀 흘리는 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TP '전북 ILP 서비스' 본격 가동

〈기술 매칭 및 사업화 지원〉

## 도내 기업 맞춤형 기술 매칭기술 탐색 등 전주기 지원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2026년 제1차 ILP(Industrial Liaison Program) 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ILP 서비스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번 회의는 ILP 서비스의 추진 방향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고, 기업의 기술 수요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ILP 위원회는 ILP 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지원하며, 기술 매칭 및 사업화 지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형 ILP 서비스는 도내 기업과 도내의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간 기술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술 수요 발굴부터 매칭,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JB ILP 시스템(https://ilp.jbtp.or.kr)'은 2025년 9월 말 구축·오픈된 현재 운영 중이며, 도내외 유망기술 DB와 연구기관·대학이 보유한 기술 정보를 기반으로 지능형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기업 맞춤형 기술 매칭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탐색부터 협력 파트너 발굴까지 효율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종환 단장은 "JB ILP 시스템을 기반으로 올

해부터 ILP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술 매칭과 사업화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기술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LP 서비스는 기술연결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참여가 가능하며, 향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기안전공사, 윤리경영 콘텐츠 이모터콘 공모

오는 17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일부터 '2026년 윤리경영 콘텐츠 이모터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윤리·공정·책임·정량·내부통제 등 윤리경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일상적인 소통 수단인 이모터콘으로 표현해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국민이 함께하는 윤리경영 실천 모델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참가자는 윤리 관련 메시지를 담은 이모터콘 4종 이상 10종 이하를 한 세트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남화영 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윤리경영의 공시 공식 블로그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품작은 실제 업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된 작품은 향후 공사 메신저에 반영돼 내부 소통 활성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남화영 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윤리경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내·외부의 윤리문화 확산과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농식품부, 농자재 수급 현장점검 실시

### 중동 사태 대응 가격 동향 일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등이 국내 농자재 산업 및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용 필름과 비료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7일부터 6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별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총 10개 팀, 240여명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농협경제지주에 농업용 필름을 납품하는 주요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자재(Polyethylene(폴리에틸렌), PE) 사용량·재고량 및 향후 필요량을 확인하고, 제품 가격 상승을 기

대해 재고를 보유하거나 제품 생산을 감축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중동전쟁 전후 원자재 가격 변동도 확인한다.

필름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농협 자재센터 및 민간 자재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3~5개소, 전국 약 700여개소를 선정해 제품 재고량 및 수요량을 확인하고, 중동전쟁 전후 공급·판매량 및 제품 가격 변화 등을 확인해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원가 상승 폭을 초과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비료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전국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17개 비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 보관 상태와 원자재 및 완제품 재고량을 확인하는 등 비료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주요 요소사용 비료는 완제품 및 원자재 재고 고려 시 7월까지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으로, 가수요 방지를



〈사진=농식품부〉

위해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비료 구매실적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시해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비료는 농업인의 실수요에 맞춰 적기에 공급·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농업용 필름은 품목별·지역별 수급 불

균형 발생 시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지역농협 간 물량 전매 등 지원을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원자재 공급 확대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진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휴먼쇼핑 등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전북경진원)은 주식회사 휴먼쇼핑,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휴먼쇼핑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전북경진원 윤여봉 원장, 휴먼쇼핑 권진미 대표이사,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박춘관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 및 조합원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지원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성과창출 지원 및 계획 수립 △지역 내 중소기업 진출 국가별 시장동향 등 상호 정보 공유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정소민 기자

## 중기부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 추진

### 이어드림스쿨 교육생 5개 권역 청년 300명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인공지능(이하 AI) 분야 청년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하 이어드림스쿨)' 6기 교육생을 지난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어드림스쿨은 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취업 청년을 AI 분야 실무 인력으로 양성해 취·창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AI 무료 교육을 비롯해 국내외 AI 경진대회 참여기회 제공, 스타트업 협업 프로젝트 수행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육 인원 및 교육 지역

확대, 교육생 수준별 맞춤형 과정 신설 운영 등 사업 내용을 대폭 개선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 인원은 지난해 보다 100명이 늘어난 총 300명을 선발하고, 교육 지역도 그간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수도권(서울), 강원권(원주), 경상권(대구), 전라권(전주), 충청권(전안) 등 5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교육 과정은 비전공자인 초급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존 '기본반(7개월)'에 더해, AI 관련 경력자,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 설계된 '심화반(3개월)'을 신설해 교육생이 자신의 AI 활용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성적 우수자 및 조기 취업자 등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등으로



〈사진=중기부〉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 성장 수여 등의 포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인공지능 분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해 스타트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지방우정청〉

## 전북우정청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나눔

### 정서적 안정·건강관리 도움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구분준)은 나비채(전주시봉사단체)와 양현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반려식물을 나누는 특별한 활동을 실시했다.

행사는 어르신들이 조족의 생명력을 통해 희망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되찾고 함께 홀몸 어르신들이 화분 400개를 직접 제작, 포장해 전달했다.

반려식물로 제공된 '데모루'는 밝은 희망을 상징하며, 실제 공기정화에 효과가 커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함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전북지방우정청은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지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조달청, (주)아시아 현장 방문

### 공공판로 확대 지원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4월 6일 펜스 제조 전문기업 (주)아시아(전북 완주 소재)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확인하고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26년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아시아는 2009년 설립된 울타리·펜스 제조 전문기업으로, 메쉬펜스·디자인펜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자동화 생산체계를 구축한 전북지역 대표 중소기업이다.

김항수 청장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



〈사진=전북지방조달청〉

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신보 고창지점 이전 새 보급자리에서 업무 재개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중관, 이하 전북신보)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창지점을 이전하고, 지난 6일부터 정상 업무를 시작했다.

새롭게 문을 여는 고창지점은 선운교육문화회관 1층에 위치하며, 기존보다 접근성과 상담 환경이 개선돼 고창군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관 이사장은 "이번 고창지점 이전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고객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국민연금 "혁신도시 금융거점 조성 환영"

### 하나금융 자본시장 센터 신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4월 7일 하나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자본시장 핵심 기능을 집적한 '하나금융 자본시장 원 루프(One-Roof) 센터'를 신설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한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 대체투자 운용, 증권, 은행(수탁영업), 콜센터

기능을 통합한 거점을 구축하고, 이곳에 최초 150여명의 임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인력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전북 소재 주요 대학과 연계한 창업 교육,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 전용 사무공간 마련 등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성장 플랫폼 강화도 지원한다. /정소민 기자

# 천호성 예비후보 “19세 지방의원 만들 것”

## 학생 자치 보장 및 청소년 의회 활성화 등 학교 정치교육 공약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대폭 강화해 고교 졸업 직후인 '19세 청소년 지방의원'을 배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7일 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사회와 정치의 주체로 목소

리를 낼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정치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핵심 공약으로는 학생 자치 활동 보장 및 학교운영 의사결정 참여 확대, 시민 삶과 밀접한 정치교육 활성화, 지방의회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청소년 정치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미래 진로 경로로 직접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천 예비후보는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학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통해 시민역량을 기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학

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교육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행법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엄격한 상황에서, 정규 교육과정 내 정치교육 도입이 자칫 이념 편향성 논란이나 학교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천호성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사회와 교수로 지내며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종교의 자유처럼 학교

수업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되, 사적인 생활에서는 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교육자를 사실상 ‘정치적 금지산자’로 묶어두는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장 교사들이 독학을 쓰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을 이끌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확실한 제도적 방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 전북 체류형 관광 파트너 여행사 모집

13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이 ‘2026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서부내륙권 연계·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할 파트너십 여행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부내륙권 특화 관광자원의 상품화 역량을 보유한 민간 여행사를 발굴·선정해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특화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기획·판매를 통해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과 소비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접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cool98@jbct.or.kr)로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향토문화 △문화예술, △역사문화 △자연휴양 등 4개로, 분야별 1개 업체씩 총 4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여행사에는 상품 유형에 따라 인센티브와 홍보지원비가 지원되며 심사 비율은 실적평가 30%, 발표평가 70%로 구성된다. 발표심사는 오는 16일에 진행되며, 결과는 1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문화관광재단 누리집과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 프로야구 스타 김준환, 체육 소장품 기증 동참

1980년대 한국 프로야구 부흥을 이끈 야구 스타가 체육 소장품 기증에 동참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김준환 전 해태 타이거즈 프로야구 선수가 체육역사기념관에 보탬이 되라며 값진 소장품을 전달했다.

기증한 소장품은 쌍방울 레이더스, MBC 청룡 등 각 구단의 싸인볼 등이다. 완주군이 고향인 김준환 스타는 전주 동초와 군산남중, 군산상고를 졸업했으며 1982년 해태타이거즈 창단 멤버로 입단했다.

김봉연, 김성환과 함께 이른바 ‘KKK 타선’을 이끌며 해태 타이거즈의 중심이 됐다.

특히 1982년에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1987년에는 한국시리즈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화려한 선수 생활 후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쌍방울 레이더스 1군 타격코치 및 감독대행, SK와이브스 1군 수석코치, 원광대 야구부 감독, 전주고 야구부 인스트럭터 등을 역임했다.

기증식을 정중히 거절한 그에게도 체육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 증서를 전달했다.

김준환 야구 스타는 “전북체육역사기념관 건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군산상고 야구부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인 김준환 감독님께서 기념관 건립에 동참해주셔서 영광스럽다”며 “전북 체육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올림픽 메달로 체육 소장품 기증 릴레이를 지속되도록 펼치고 있다.

<사진=전북체육회>

/장정철 기자

## 남원시, 남임순장 터링 어울림대회 성료

남원에서 화합과 어울림의 장인 제2회 남임순장 터링 어울림대회가 지난 7일 남원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남원시장에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원시장에인터링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남원·임실·순창·장수 4개 시군 16개 단체에서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터링”은 볼링과 컬링의 경기 방식을 접목한 스포츠 종목으로, 장애인 선수들의 집중력과 신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최근 생활체육 종목으로서 관심이

모아왔다. 경기는 지적부, 어울림부, 단체전(4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단체전은 조별리그를 거쳐 각 조 상위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결승 경기를 치렀다.

남임순장 터링 어울림대회는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염원-정하복 기자



<사진=학마을계획추진단>

## 전주 서서학동 학마을계획추진단, 제조작업 실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동장 정혜윤) 학마을계획추진단(단장 박영진)은 3일 불두와 300주, 묵수국 200주 등이 식재된 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제조작업을 실시했다.

또 주민과 마을을 찾는 이들이 잠시 쉬어가며 읽어보라고 시(詩)를 게시했는데 오래되고 햇빛에 퇴색돼 오히려 볼쾌감을 줄수 있는 상태의 시(詩)게시판을 주

민들이 좋아하는 서서시모 교체했다. 정혜윤 서서학동장은 “우리 마을이 잘 가꾸어졌지만 시(詩)게시판이 산뜻하지 못해 그간 아쉬웠는데 이번에 교체 작업을 통해 새롭게 여유를 가질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신영기 단원은 “우리 손으로 마을을 가꾸는 것이 보람이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 익산 황등도서관 ‘책 읽기’ 공모 선정

익산시가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문화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익산시 황등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의 독서 습관 형성과 정보·문화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120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며, 강사비와 도서 구입비, 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황등도서관은 목천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초등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사서와 함께하는 도서관 견학 및 활용 교육 △독서지도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독후활동·글쓰기·독서토론 △연극인과 함께하는 작품 이해 및 공연 체험 등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도서관과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은 “농촌지역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도서관이 정보와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임실군,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연 펼쳐져

임실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공모한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늘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한다.

임실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72백만원, 도비 9백만원, 군비 22백만원 등 총 1억 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가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임실군지회(이하 임실예총)가 수행단체로 참여한다. 임실예총은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임실의 자연과 문화

자산을 활용한 밀착형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했다.

4월은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8일부터 매주 수요일 공연을 진행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린다.

5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례화해 운영한다.

임실군은 “전북문화관광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임실예총이 선보일 이번 프로그램들이 군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정기적인 행사인 만큼 많은 분이 수요일마다 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철 기자

잠시멈춰 분류하는 습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꿉니다



###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50인 미만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정기 순회 방문 지도 △대상별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식단 및 조리 안내서 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위생·영양 교육 등이 있다.

특히 센터는 급식소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가 점검표와 계절별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스스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 모인여행숲도서관

#### 오는 25일 '리니 작가 초청 강연'

익산시는 모인여행숲도서관에서 개관 1주년과 도서관주간을 맞아 시민 참여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리니 작가 초청 강연'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모인여행숲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강연자인 리니(고미선) 작가는 '기록이라는 세계'와 '쓰는 만큼 내가 된다'의 저자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채널 '기록하리니'를 통해 일상과 여행을 기록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리니 작가는 강연에서 △여행 기록을 누군가를 위한 정보에서 나를 위한 기록으로 확장하는 방법 △여행의 순간들이 삶의 의미 있는 기록으로 쌓이는 과정 △기록을 통해 자신의 방향성과 다음을 발견하는 이야기기를 다룰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개관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과 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기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이번 강연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 '투명·효율적 재산관리 박차'

정읍시가 7일 시청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제2회 심의회를 열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 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특히 민간 위원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 건축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엄선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이달부터 오는 2028년 4월까지 2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수립과 변경,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용도 변경 및 폐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행정재산 용도 폐지, 일반재산 용도 변경,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및 처분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은 그 가치와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읍시는 각 분야 전문가인 민간 위원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시의 공유재산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군산, 교육 지원 강화 2(題)

## 익산시, 디지털 지역화 교재 도입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발맞춰 지역 이해 중심의 미래 교육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디지털 지역화 교재 '우리는 익산에 살아요'를 개발하고, 지역 초등학교 3학년용 대상으로 전면 보급해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 형태의 지역화 교재를 자체 개발해 보급한 사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중 익산시가 처음이다.

익산시는 익산교육지원청과 원광대학교 교육공동체 지원센터 등 지역 교육공동체와 협력해 교재를 제작했으며, 원광대학교 교육발전특구사업단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디지털 지역화 교재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익산

의 역사·문화·생활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또한 전자책 판과 태블릿 PC 등 교육 환경에 맞춰 설계돼 에듀테크 기반의 생동감 있는 수업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학습 중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챗봇 기능을 탑재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적용해 학습 흥미를 높였다.

특히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시는 앞으로도 교육 발전특구 취지에 맞춰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계속 다진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공공형 진로진학 컨설팅' 운영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관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미래설계와 진학 준비를 돕기 위해 오늘부터 '공공형 진로진학 컨설팅'을 운영한다.

'공공형 진로진학 컨설팅'은 어렵고 복잡한 입시환경에서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진로진학 설계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기획됐으며, 입시지도 경험이 풍부한 관내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상담사로 직접 참여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군산시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상담은 1:1 대면 방식으로 화당 40분간 진행된다. 컨설팅 내용은 학년별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초·중

학생은 적성검사 결과와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직업 및 학과를 연계한 '진로설계'에 집중하며, 고등학생은 생활기록부와 내신성적을 분석해 실질적인 '입시전략' 수립을 돕는다.

상담 예약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누리집www.gunsanedu.org을 통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학근 이사장은 “공공형 진로진학 컨설팅은 현직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학 설계와 공부 방법 등 미래 설계를 위한 조언을 건네는 사업”이라며, “자녀의 적성이나 막연한 입시 준비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다자녀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

## 출퇴근 버스 확대·전국 최초 퇴직연금 지원 등

정읍시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가족용 차량(패밀리카)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단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사

치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이들이 6~11인승 신규 가족용 차량(패밀리카)을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와 배정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6세 미만 자녀 수, 막내 자녀 연령, 18세 이하 자녀 수, 차량 보유 현황, 시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5인승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거나 출고 후 7년이 넘는 6~11인승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차량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7년 이내의 가족용 차량(패밀리카)

를 이미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는 2년간 도내에 거주하며 지원받은 차량을 의무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 조치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1일까지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전환

## 5부제서 홀짝제로 강화 공공부문 솔선수범

군산시는 원유 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영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

기 위한 것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사 출입 제한 등 관리 조치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승용자동차이며, 전 기차와 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차량,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한편,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시청 등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기존 차량 5부제 준수를 자율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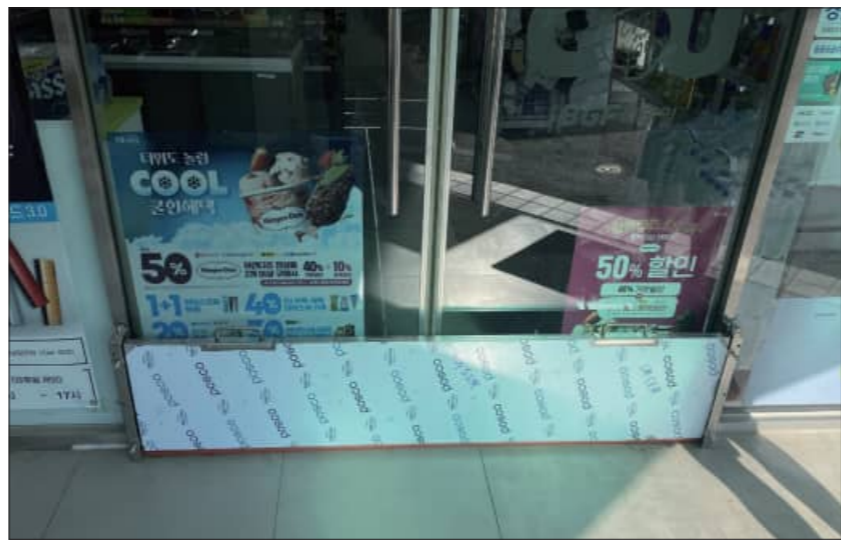
# “익산시, 상가 침수 피해 막는다”

## 소규모 상가 차수판 설치 지원... 22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안전 강화에 힘을 쏟는다. 익산시는 침수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차수판은 상가 출입구 등에 설치해 빗물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방재시설이다. 시는 총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90%, 최대 13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상가는 익산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민안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



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상가는 익산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민안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올해도 차수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 시티스테이 올레’ 참가자 모집

### 1박 2일 가족 체류형 관광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력센터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외 거주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 2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인 ‘정읍 시티스테이 올레’ 참여자 30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주말을 활용해 진행된다. 1일 차에는 정읍역에 집결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을 시작으로 내장산 기적의 놀이터 순환열차와 1894달하루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후 원도심 여행을 통해 개화기 의상 입어보기와 쌍화차 체험을 즐기고, 저녁에는 기억저장소에 서 도심 속 감성 잔치로 하루를 낭

만적으로 마무리한다. 숙박은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형 숙박시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용산호 미르샘을 찾은 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정읍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살펴보고, 떡어울림플랫폼에서 전통 떡 만들기 체험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참가 신청은 누리소통망(SNS) 및 온라인 소문 창구(채널)를 통해 사전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정읍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시, 구직단념 청년 맞춤형 지원

### 1인당 최대 350만 원 지원

군산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음에도 청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사업에는 ㈜유엔씨(대표이사 유경민)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청년이다. 이와 함

께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지원사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되며, △개인 맞춤형 1:1상담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교육 △취업연계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5주, 18명), 중기(15주, 39명), 장기(25주, 21명) 과정으로 총 78명의 참여자를 선발한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과정에 따라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최대 350만 원 지급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청년도전지원사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튠업 향연’... 익산 용안생태습지

익산시 용안생태습지 내 초화류 경관단지가 형형색색 튠업으로 물들며 본격적인 봄철 상춘객 맞이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식재한 튠업 구근이 월동을 마치고, 최근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노란색과 빨간색 튠업이 점진적으로 개화하고 있으며, 이달 중 단지 전체가 만개해 절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용안생태습지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휴식과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초화류 경관단지를 지속적으로 가꾸고 있다.

4월에는 바람개비 정원이 조성되고 이어 유채(4~5월), 꽃양귀비(5~6월), 수레국화(5~8월), 끈끈이대나물(5~8월) 등이 순차적으로 개화해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관 조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군산상공회의소>

## 군산상공회의소, 전북TP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7일 군산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군산 지역 기업체 임직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술개발, 사업화, 마케팅, 인력양성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활용 가능한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기업의 비용 절감과 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설명을 통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

을 가졌으며, 설명회 이후에는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 적용 방안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현장 중심의 정보가 공유됐다.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안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부안군, 道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 도 대표 연구과제 발표 및 수상 등 적극 세무행정 성과 인정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에서 군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신장률, 징수실적, 연구과제, 세무조사 등 23개 평가항목 대해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군은 전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군은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와 전북자치도 대표로 전국 연구과제를 발표해 수상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군은 2023년에도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군 세정분야의 우수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어려운 시기에 성실히 납세해 주신 군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고창군, 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 안전관리 강화 등 행정공백 제도화 총력

고창군이 심덕섭 고창군수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7일부터 김영식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에 나선다.

김영식 권한대행은 전환 첫날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주민 불편과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6대 중점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 공백 방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분별 현수막 관리 등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 △

중동사태 대응 및 지역경제 상황 관리 △중앙·도 추경 대비 사전 준비 철저 △재정 신속 집행 적극 추진 △주민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김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공직자의 선거 중립은 필수적인 의무임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활동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 대외 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고, 민생경제에 빈틈이 없도록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실천과 재정 신속 집행, 추경 대비의 중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민원·복지·교통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보리밭 축제 등 인파 밀집 행사 안전관리와 불철 산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식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이 중요하다"며 "전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민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AI 활용 로컬창업 인재 양성

## 23일까지 교육생 모집

부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AI 기술을 활용한 로컬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창업 루키즈와 AI 크리에이터 루키즈'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AI 기술을 활용해 기획·생산·마케팅·해외수출까지 수행할 수 있는 올데이 올라운더(All-Day All-Rounder)형 1인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창업 루키즈 프로그램은 만 60세 미만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농촌형 AI 창업을 위한 판매구축 컨설팅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온라인 셀러 육성 및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AI 크리에이터 루키즈 프로그램은 만 60세 미만 농민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신 AI 도구 활용 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이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부안군>

교육생 모집인원은 창업 루키즈 40명, AI 루키즈 25명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태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디지털 창업 및 마케팅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로컬창업 생태계 조성과 공동체 회복,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고창군, 오는 17일까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고창군이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위한 조사관리요원 8명과 조사원 22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17일까지이며, 모집된 조사요원은 사전교육을 거쳐 6월12일부터 7월22일까지 현장 방문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책임감 있고 성실한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통계조사 경험자, 전산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 채용한다.

지원자는 고창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뒤 '경제총조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공무원 이메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제출 서류를 지참해 군 기획예산실 기획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등을 파악하는 5년 주기 전수조사다.

이 통계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지역특화산업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게 된다.

202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총 38개 항목(공통항목 12, 특성항목 26)에 대해 조사한다. 인터넷 조사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현장 방문 조사는 6월12일부터 7월22일까지 진행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경제총조사는 대규모 조사인 만큼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많은 분의 관심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통합돌봄 대상자 가구 방문

## 18가구에 돌봄 패키지 전달

고창군이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에 맞춰, 시범사업 당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18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에 나섰다.

그 첫 행보로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무장면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부부 가구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생활밀착형 예방 돌봄 패키지'를 전달하며 건강상태와 생활 환경을 꼼꼼히 파악했다.

해당 가구는 무장면 맞춤형복지팀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곳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더해 주거공간 개선 사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이불세탁 지원, 임플란트 및 틀

니 의료비 지원 등 건강과 위생 영역 지원을 아우르는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50명이 통합돌봄사업에 신청한 상태이며, 각 읍·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자 위주로 발굴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함에도 누락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숨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숨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건강할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예술회관, 오는 16일 4월 무료 영화 '휴먼트' 상영

부안군은 오는 16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4월 무료 영화 '휴먼트'를 무료로 상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영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영화는 인간관계와 선택의 무게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으로 흡입력 있는 전개와 묵직한 메시지가 돋보이는 첩보 액션 영화다. 약 235여명의 제작비 투입과 류승완 감독이 연출을 맡고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등 화려한 캐스팅이 더해지며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한 첩보 액션에 멜로를 결합한 장르적 시도를 보였으며 특히 조인성의 절제된 액션과 박정민의 감성 연기는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해 관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회당 선착순 499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상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시-NH농협은행, 제휴카드 기금 전달

## 적립기금 7,029만원 전달

김제시는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지부장 강대연)가 지난 6일 '2025년도 김제시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이현서 김제 부시장을 비롯해 강대연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 지부장, 소순지 김제시공고 지점장, 김재훈 회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휴카드 적립기금 7천292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시가 전달받은 기금은 양 기관 간 공동협약에 따라 지난해 1년간 김제시청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와 보조금 전용카드, 보택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사용액의 0.1~1.0%를 적립한 것으로, 농협 김제시지부가 매년 시에 전달하고 있다.

강대연 지부장은 "김제시와 제휴를 통해 적립된 기금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6일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가 2025년도 김제시 제휴카드 적립기금 7029만원을 전달했다. <사진=김제시>

이어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현서 부시장은 "매년 제휴카드 기금을 적립·조성해 준 NH농협은행 김제

시지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김제시와 상생 발전하는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센터, 협력 체계 구축

## 가족지원정신건강증진 업무협약체결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종석)와 부안군가족센터(센터장 유미나)는 지난 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가족지원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취약·위기 가정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족지원 서비스와 정신건강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부안군가족센터 관계자는 "가족의 안녕과 행복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직결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전



지난 2일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안군가족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부안군>

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다각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지역 사회 정신건강과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온봉기 기자

# 고창군,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 준공

고창군 신림면 주민행복센터(면사무소)가 면 중심지로 이전해 다양한 문화복합시설과 함께 준공됐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6일) 오후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행사는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유종팔) 주관으로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림면 행정문화 복합센터'는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주민행복센터를 결합한 기능 집약 형태의 고창군 최초 공공 복합청사다.

총사업비 66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998㎡ 2층 규모로 지어졌고, 외곽에 위

치고 노후화된 신림면 주민행복센터가 이전했고, 공유주방, 동아리실, 다목적실이 마련됐다.

또한, 연계 사업으로 1급 발달장애인 센터와 내구성이 취약하고 가연성인 드라이비트 철거를 포함해 신림 종합복지회관을 전면 리모델링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이 조성됐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농촌지역의 핵심 기능 집약과 고밀도 개발을 통한 농촌공간간의 혁신적인 도전이었다"며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더 나은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금동문화센터 운영 위한 벤치마킹

김제시는 새마을사업으로 조성 중인 금동문화센터 목공소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재 진안장작공예공방을 방문해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금동문화센터 목공소의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서각 및 목공예 분야의 전문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대상인 진안장작공예공방은 서각과 목공예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예 활성화 및 주민 참여로 주목받고 있다.

조용완 도시과장은 "금동문화센터 목공소가 단순한 작업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사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 꽃정원 페스타 성료 "튐립 만개 앞두고 기대감 고조"

고창군이 지난 4~5일(2일간) 개최한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고창 꽃정원 페스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벚꽃축제 기간에 맞춰 '고창 꽃정원' 홍보를 위해 진행한 '고창 꽃정원 페스타'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스텝투어 등 벚꽃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꽃정원 경관이 잘 조성됐다", "사진 촬영과 산책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창 꽃정원은 오는 4월 10일을 전후로 튐립이 절정을 이루고 5월까지 다양한 봄꽃들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경 고창군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꽃정원 행사를 통해 고창의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며 "튐립 만개 시기에 맞춰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남원시, 곤충·미생물 그린바이오 본격화

## 농식품부 공모 선정 국비 11억 확보 곤충·미생물 활용 소재 개발·상용화 거점·특구 연계기업 유치 기반 강화

남원시가 곤충과 미생물을 융합한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수요 연계형 그린 바이오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3년간 총 1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곤충과 미생물을 활용한 '유용 성분 발굴 및 소재화'에 있다. 단순 사육을 넘어 첨단 바이오 전주기

인 '소재 발굴-공정 개발-제품화-상용화' 단계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곤충 기업들이 겪어온 현장 예로 기술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연차별 로드맵에 따르면 1차 연도에 기초도 증진 기술을 체계화하고, 2차 연도에는 기능성 강화 기술을 확립해 나간다. 마지막 3차 연도에는 본격적인 제품화에 나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오는 2027년 말 완공 예정인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R&BD(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곤충 소재를 단순 식용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및 의약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이번 공모 선정은 남원(사계) 일반산

업단지가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된 것과 맞물려 시너지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특구 입주 기업은 법인세·재산세·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남원시가 거점 단지를 통해 구축할 '맞춤형·표준화 곤충 원료 공급 체계'는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기업에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으로서 세계 혜택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 맞춤형 R&BD와 인프라 구축 등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기업이 먼저 찾는 남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다자녀 패밀리카 지원...최대 5백만원

### 3자녀| 차량구입비 10% 지원 1년 이상 거주...21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대 500만원의 가족형 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군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2026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오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해당사업은 공고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18세 이하(2007년 4월 1일 이후 출생)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6~11인승 가족형 차량 구입비의 10%(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조건으로는 △(가구요건) 공고일 기준 3명의 자녀와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및 실제 거주를 하여야 하며 △(차량요건) 당해연도에 차량 구매 계약 후 출고가 완료 되고, 공고일 이후 신규로 최초 등록된 국산 차량이어야 한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은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해당사업은 공고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18세 이하(2007년 4월 1일 이후 출생)인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시 행정 혁신' 시동 실무자 대상 활용 교육

완주군이 인공지능(AI)을 행정 업무에 전격 도입해 스마트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무 직원 19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실습 교육을 7일 실시하며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과정형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의 연장선으로, 대민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6급 이하 실무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과정은 공공 행정 인공지능(AI) 실무 전문가를 초빙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트렌드와 행정의 변화를 살피는 동시에 인공지능(AI) 활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지침과 저작권 보안 가이드를 학습했다. 이어 맞춤형 질문을 활용한 효율적인 보고서 작성법과 챗GPT(ChatGPT) 기반의 업무 자동화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한 단계 높였다.

군은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기본과 심화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 활동을 총 3회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직원들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지원 체계 구축

##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통장 개설·환율 우대 등 지원

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원활한 금융 서비스 이용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NH농협은행 완주군지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지난 3일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과 원천연 NH농협은행 완주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계절근로자 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이 겪는 금융 장벽을 해소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



<사진=완주군>

업 일정 공유 및 공문 지원 △통장 개설 전만 협조 △환율 우대 및 수수료 감면 △통번역 안내장 제공 △농장주 대상 금융 교육 실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겪는 언어와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고유가 지원금 추진...지급 시기 규모 '이목'

### 정부 1, 2차 지급 이후 전량 군민 전체 30만원 이상

완주군이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완주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히태 완주군수 예비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1차 30만원, 2차 3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동일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가로 준다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출마선언을 하며 1호 공약으로 이를 선언했다.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 12월과 202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수준보다 높은 액수 지원을 검토 중이다. 재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액 군비로 마련할 계획이며, 지급 시기는 내부 조율 중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1차를 4월, 2차를 6월에 나눠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은 비수도권 기준 1인당 15만원 수준으로, 완주군 역시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돼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1차 우선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2차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은 향후 정책 조정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완주군은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30만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다. 지급시기는 정부 차원의 1,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후로 전망된다.

유히태 예비후보는 "행정 예산은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우선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여름철 재난 대비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 세월교 등 취약지 사전 점검 진행 대피계획 수립 읍면장 명령권 부여

순창군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군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과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부군수 중심 총괄관리체

계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세월교, 금경사지, 저수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46개소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읍·면장에게 주민대피 명령권을 부여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대 1 매칭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수펌프장 사전 점검과 재난예·경보 시스템 상시 운영, 마을방송과 재난문자(CBS) 등을 활용한 신속한 상

황 전파체계를 구축해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를 운영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자연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위험지역 점검과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 운영

### 중소기업 납부 3개월 자동 연장 100만원 초과 분할 납부 허용

순창군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순창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이 있는 지자체마다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인 법인은 안분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정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먼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중소기업 외 1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것이 가능하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춘향제 차박 공간 무료 개방...사전 예약

## 종합스포츠타운 등 3곳 220대 수용 사위시설·화장실 등 편의 제공

남원시가 오는 30일 개막하는 '제96회 춘향제'를 앞두고, 전국 차박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임시 차박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사전 예약을 접수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차박지는 종합스포츠타운 내 족구장과 축구장 주차장, 합파우 소리체험관 주차장 등 총 3개소다. 캠핑카와 일반 승용차 등 총 220여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뛰어난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두루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전문 캠핑족까지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공간은 주차장을 임시 활용하는 만큼 별도의 취사 시설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시는 방문객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스포츠타운 내 사



<사진=남원시>

춘향제 공식 홈페이지 차박 사전 예약 시설을 운영하고, 기존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등 위생 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권은 1인 1사이드로 제한된다.

사전 예약은 24일 오후 6시까지 춘향제 공식 홈페이지(chunhyang.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약

기간 내 정원이 미달될 경우, 축제 기간 중 여유 공간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찾아가는 드론스포츠교실' 확대

### 20개 기관 671명 참여 현장 교육

남원시가 관내 학교와 복지·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드론스포츠교실'을 운영하며 드론 레저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사업은 드론스포츠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는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사전 신청 접수 결과, 학교를 비롯한 복지·행정기관 등 총 20개 기관에서 671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교육은 오는 6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드론레이싱, 드론축구, 드론농구 등 박진감 넘치는 종목들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교육 대상을 유치원과 장애인·노인 복지기



<사진=남원시>

관, 행정기관까지 대폭 확대했다.

시는 이번 교육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과 시민의 자발적인 동호회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춘향제 기간에는 현장 체험 부스와 '유소년 드론챌린지' 대회를 함께 운영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봉동보건지소 만성질환 예방 식생활 교육

완주군 봉동보건지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해 만성질환 예방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현장 교육에 나섰다.

군은 봉동보건지소 건강증진실에서 지역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실천의 핵심인 영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사업'의 하나로 주 2회 진행되는 서플랜스와 월 1회 보건 교육 특강을 결합해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과 신체활동 감소로 늘어나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

프로그램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 특강 △내 혈압·내 혈당 알기 △건강증진 및 건강수첩관리 △질환별 영양교육 및 건강한 식습관 방법 △건강한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자들은 저염·저지방 식단을 반영한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식단 구성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식품포화과 식품구성 자연계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방법도 함께 배웠다. /완주=김명곤기자

### 임실군, 자원안보 '경제' 발령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임실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제' 단계 발령에 맞춰, 8일부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도를 높이기 위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승용차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임실군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실군 소속 전 직원의 승용차와 공용차는 홀짝일에 맞춘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홀수 날에는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 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이 운행 가능하다.

군청 및 소속 기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주차장 운영의 취지를 살려 '승용차 5부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민생 업무의 연속성과 교통 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을 비롯해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임무수행 차량은 이번 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2부제 시행에 따른 공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및 화상회의 활용 등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함양군, 고향사랑 상호기부 실천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와 함양군청 재무과 직원들이 고향사랑상호기부에 동참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상대 지역에 각각 150만 원씩 전달했으며 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쓰이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지역을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함양군 공무원들과 뜻을 함께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으로서 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 진안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최대 15만원 지원

진안군은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프라 문제를 보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진안군의 맞춤형 보건 정책으로 관내 응급환자가 상급 의료기관 등 타지역으로 이송될 경우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금액은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해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방문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인공지능 선별시스템 도입

### 무풍산지유통센터 내 인공지능 선별기 시연회

무주군은 무풍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선별기를 인공지능 자동선별기로 전환하고 7일 시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노창환 무주군수 권한대행과 김성곤 구천동농협장,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총괄본부장, 곽동열 무주농협장, 양시준 조합공동법인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사과 선별 과정을 지켜보며 의견을 나눴다.

노창환 무주군수 권한대행은 "이번에 설치된 인공지능 선별기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과의 색상과 크기, 당도는 물론 내부 갈변 정도나 미세한 흠집까지도 정밀하게 판독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라며 "기존 육안 선별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 선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처리 속도가 20% 이상 빨라져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규격



무주군은 무풍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선별기를 인공지능 자동선별기로 전환하고 7일 시연회를 가졌다 <사진=무주군>

화된 고품질 사과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풍산지유통센터는 5,887㎡ 규모에 사과 925톤을 저온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5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무풍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1시간에 5톤, 하루 총 48톤을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카메라와 선별시스템 등을 확충했으며 이 장비는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임실군, '과수 실증시험포' 조성

### 명품 과수산업 육성 박차 미래형 과원 모델 제시

임실군이 지역 특화 작목인 복숭아와 사과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형 과수 실증 시험포 조성 완료하고 본격적인 실증 운영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1년간 총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품종과 최신 재배 기술의 지역 적응성을 현장에서 정밀 검증하는 '과수 실증시험포'를 구축하고, 임실 과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마련에 나섰다.

과수 실증시험포는 새 품종 개발된 품종과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에 앞서, 실제 재배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하는 '현장 밀착형 연구 과원'이다.

단순 시험재배를 넘어, 현장 적용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농가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실증시험포는 특히, 최근 과수산업의 핵심트렌드인 '평면화·집약화 수형'을 대거 도입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하는 미래형 과원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품종 구성도 내실있게 갖췄다. 복숭아 12종(마루황도 등 국내 육성 7종 포함)과 사과 5종(골든볼 등 국내 육성 3종 포함)을 식재해 지역 적응성 검증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국내 육성 품종 비중을 확대해 국산 품종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재배방식 또한 혁신적이다. 복숭아는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팔메트 수형' △광 투과율을 높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다축수형' △생육 특성을 살린 '자

연류 수형' 등 총 6종의 다양한 수형을 적용해 최적의 재배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과는 작업 효율성과 품질 균일도를 높일 수 있는 '평면수형(2D 수형)'을 도입해 노동력 절감형 미래 과원 모델을 구현한다.

아울러, 군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자 추중 운반로봇과 무인 제조로봇 등 스마트 농업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배 경감시설을 구축하는 등 첨단 농업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함께, 실증시험포를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교육·전시 공간으로 운영해 변화된 재배 기술과 품종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출범·신규 사업단 운영

### 참여주민 자립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구축

장수군은 장수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구중)이 자활기업 출범과 신규 사업단 운영을 통해 참여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자활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장수지역자활센터는 그동안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맞춤형 직무 교육을 바탕으로 참여주민의 자립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왔으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자활 환경 조성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25년 12월 22일 외식사업단인 '한국국수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독립시켰다.

'한국국수' 자활기업은 체계적인 운영과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참여주



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자립형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4월 1일부터는 청소·환경관리 분야의 자립형 사업단인 '장수클린사업단'을 신규 추진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장수클린사업단'은 공공기관 및 사무실 청소, 공동주택 관리, 취약계층 가정 방문 청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2026년도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 수질검사 결과 모든 항목 '적합'

임실군이 군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수질종합정보를 담은 2026년도 수돗물품질보고서 6,000부를 발간하여 12개 읍·면에 배부 완료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6년도 수돗물품질보고서는 △정수처리과정 △수돗물에 대한 일반상식 △2025년도 수질검

사 결과 △주민 협조사항 △상수도 민원 안내 등 우리군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종합정보를 담은 군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알리고자 제작·배부하였다.

임실군 관내에 위치한 임실 및 강진 정수장의 상수원수는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인 '매우 좋음(Ia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정수처리공정을 거친 정수 및 관내 수도꼭지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돗물품질보고서는 임실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책자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임실군, 도서관주간 맞아 문화행사 풍성

### 공연부터 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임실군 군립도서관은 도서관의 날(4월 12일) 및 도서관주간(4월 12일~18일)을 맞아 '도서관 속 작은 펠립, 세상을 여는 큰 열망'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밝혔다.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독서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매년 4월 12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도서관주간은 이를 포함한 일정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 기간동안 임실군립도서관에서는 △책과 만나는 OST 클래식 공연 △가족체험 프로그램(트

발케이크 만들기, 문패만들기) △지역화가 초청전시 △영수증 이벤트 △봄날 시 한편 등을 운영한다.

오수도서관에서도 △윈데이클래스(생화리스 만들기) △행운의 돌림판 △대출자 이벤트(압화책갈피 증정)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연체 도서를 반납할 경우 대출정지를 해제해주는 이벤트를 두 곳 도서관에서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재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농촌 왕진버스' 설천면 찾아 진료 진행

### 대한의료봉사회의료진 양방진료 치과·안과검진 등 진행

'농촌 왕진버스'가 7일 무주군 설천 초등학교를 찾았다. 이날 왕진버스는 '대한의료봉사회', '원광대학교치과병원', '다스토리안병원'이 함께 해 △양방 진료와 △치과 검진, △안과 검진 등을 진행했다.

검진 대상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과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로 혈압측정과 당뇨검사와 등 직접적인 건강 상태 확인 외에도 기초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법 등도 공유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스킨급복지 상담, △귀반사 치료, △여가(사진 촬

영), △치매 예방(색칠하기) 활동을 돕는 '행복 만리길 이동복지사업'도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서비스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과 농업인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처음 도입한 의료서비스로, 무주군은 사업 시작 이래 지금까지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10월에는 무풍면 주민을 찾아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임실군의회, 제351회 임시회 폐회

###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2건 안건 처리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활동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1건, 동인안 4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4건, 기타 2건, 총 2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해당 안건들은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장종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임실군의회가 오는 6월 30일 임기를 마치게 되는 만큼,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난 4년간 군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군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고자 의회 인터넷방송 개설, 읍·면 순회간담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농업예산 확대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힘써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만큼, 위기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살피야 한다는 자세로 군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한편, 남은 임기 동안 처음의 다짐을 다시 되새기며 마지막까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현안을 하나라도 더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장은 동료 의원과 심민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늘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폐회사를 마무리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천천면, 노인일자리 현장 점검

### 봄철 산불 예방 활동 병행으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장수군 천천면은 지역 내 노인일자리 사업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7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근무 여건을 세심히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여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인근 지역을 순찰하며 주민들에게 눈·발두렁 소각과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금지를 적극 계도했다.

천천면은 산림과 인접한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마을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원 면장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천천면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순창 옥천장학회에 태블릿pc 12대 기탁

순창군은 7일 (주)피스전산(대표 김성민)이 지역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순창군 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에 태블릿PC 12대(약 85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태블릿PC는 옥천인재속 강사들의 수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수업 자료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참여도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성민 (주)피스전산 대표는 "이번 기탁이 회사의 첫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탁받은 태블릿PC는 옥천인재속 교육환경 개선과 강사 수업 지원에 소중히 활용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학습 여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 농가레스토랑 행복정거장, 어르신께 요리사가 만든 반찬 전달

완주군 구이노인복지센터는 구이 모약산 정거장에 위치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농가 레스토랑 행복정거장'에서 반찬을 후원받아 노인 맞춤형서비스 대상자 중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반찬 나눔은 농가 레스토랑의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로 이뤄졌으며, 전문 요리사가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반찬이 제공됐다.

외식업체의 전문성을 살린 균형 잡히고, 다양한 메뉴 구성은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안정현 구이노인복지센터장은 "지역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쿠팡, '온동네 케어' 운영...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장수군에서 첫 시작 매일 지속 운영 예정

쿠팡이 '보건의 날(4월 7일)'을 맞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검진 프로젝트 '쿠팡 온동네 케어'를 본격 시작한다.

'쿠팡 온동네 케어'는 쿠팡의 물류 네트워크가 전국을 연결하듯 의료 서비스에서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매일 1회 이상 전라·경상·강원·충청권 등 전국 읍·면 지역을 순회하며, 지리적 여건상 병원 진료가 어려운 마을을 직접 찾아가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쿠팡과 대한중앙의료봉사회 소속 의료진 및 자

원봉사자가 적극 협업해 진행됐다. 의료 보건 분야는 전문성과 비용, 운영상 난이도가 높아 기업 사회공헌 중 상대적으로 참여 비중이 낮은 영역으로 평가된다.

'쿠팡 온동네 케어'의 첫 대상지로 선정된 전북 장수군은 인구 2만여 명 중 40.8%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전국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는 '소멸 고위험' 지역 중 하나다. 주민 중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상급 병원과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의료 취약 지역이다.

이날 행사는 장수군 한누리전당에서 진행했는데 대한중앙의료봉사회를 중심으로 대학병원 교수급 의료진을 포함한 의사·한 의사·치과 의사·간호사·약사 등 총 4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역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의료 취약계층 400여 명을 대



상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체택 진료'를 병행했다.

주요 진료 항목은 △내과·정형외과·정신과·치과·한방재활의학과 등 종합 진료 △혈액검사 및 골밀도 검사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 △치매·우울증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진료 후에는 처방에 따른 약제와 상비약 키트를 제공했으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환자

는 상급 병원과 연계하는 사후 관리 서비스도 마련했다.

봉사에 참여한 대한중앙의료봉사회 소속 의료진은 "고령화 비율이 높고 의료 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 진료를 넘어 만성질환 관리와 정서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장수 계남면-창원 자은동, 주민자치위 교류 행사 펼쳐

장수군 계남면주민자치위원회는 창원특례시 진해구 자은동주민자치위원회와 진해구 일원에서 만나 21년간 이어온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정을 다졌다고 7일 밝혔다.

계남면과 자은동은 200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단순한 지역 간 교류를 넘어 상호 방문과 협력을 지속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 지역은 매년 진해군항제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등 대표 축제에 서로를 초청하고 가을철에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상생 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번 만남은 제13기 계남면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이후 자은동주민자치회와 갖는 첫 공식 교류 행사로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진해군항제 행사장과 진해해양공원 슬라타워 등을 함께 방문했다.

특히 이번 교류는 단순 방문을 넘어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간 협력 기반을 다지고 향후 지속 가능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고창군노인복지관, 어르신과 '벚꽃 나들이' 진행

### 벚꽃 감상하며 봄의 정취 느껴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도형 스님)은 지난 3일 고창 석정온천지구 일원에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인 '주거인프라연계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0명과 함께 '벚꽃 나들이'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고창군 석정온천지구 일원에서 열린 축제 현장을 찾아 벚꽃을 감상하며 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축제장 내 마련된 벚꽃 체험존과 체험부스에 참여해 다양한 만들기 활동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먹거리존과 공연도 함께 즐기며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나들이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꽃도 보고 체험도 하니 봄기운처럼 내 마음이 화해됐다"라며 "이웃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 더욱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군노인복지관장 도형 스님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봄날을 맞아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활력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부안 이주배경아동 학습 지원

### 성금 1400만원 기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는 7일 부안군청 부군수실에서 이음지역아동센터에 이주배경아동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학습 환경의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주배경아동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기초학습 단계

에서부터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탁된 성금은 교재 구입비, 강사비 등 기초학습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또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의 생활과 학습을 밀착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번 성금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여 실질적



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은봉기 기자



### 군산 (유)대성특수화물운수, 착한가게 신규 동참

군산시 개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채운석·공공위원장 황은호)가 7일 개정면 (유)대성특수화물운수(대표 채운석)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착한가정 캠페인은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나눔 캠페인이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유)대성특수화물운수는 군산시 중동에 소재한 운수업 기반 특수화물, 건설폐기물수집운반, 전기고압차량 장비대여 기업이다.

채운석 대표는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일교차가 큰 환절기! 따뜻하게 입고 건강 잘 챙기세요

### 1. 손씻기 & 위생관리

감기나 독감예방을 위해

외출후 손씻기  
철저히!



### 2. 운동 & 충분한 휴식

가벼운 스트레칭 & 산책으로

혈액 순환 원활하게



### 3. 면역력 키우기

제철 과일 & 채소 섭취 및

단백질 섭취로 면역력  
강화



### 4. 수분 보충하기

하루 1.5~2L 물 마시고

가습기로 실내 온도 유지



〈一事一言〉



전북은 민주당의 '정치적 소모품'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민주당에게 전북은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정치적 소모품'에 불과했는가. 175만 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세워 올린 전북의 리더십이, 단 12시간 만에 중앙당의 차가운 칼날 아래 난도질당했다. 68만 원이라는 대리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물어둔 채,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북의 시계를 멈춰 세웠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가 정의로운 때 비로소 그 권위를 얻는다. 그러나 이번 김관영 전북 지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단죄 과정에는 실제적 진실도, 도민에 대한 예우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정치적 계산과 의구심 가득한 '야간 기습' 제명만 존재할 뿐이다.

12시간 만 '야간 기습' 제명 누구를 위한 폭거인가

지난 4월 1일 밤, 전북 정가는 만우절 거짓말보다 더 황당한 비보를 접했다. 오전 10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갑작 지시가 내려진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현직 도지사이자 지지율 1위 후보인 김관영 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죄명은 '금품 제공 의혹'. 지난해 말 식사 후 시·군의원과 청년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68만 원

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물론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금품 제공은 액수를 막론하고 경계해야 마땅하다. 김 지사 본인도 "경솔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 제명 처분은 사안의 실체를 가리기도 전에 내린 '졸속 심판'이자, 전북을 제물로 삼은 정치적 숙청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68만 원에 난도질당한 175만 도민의 주권

사건의 맥락을 보라. 김 지사가 대리비를 건넨 대상은 지역의 시·군의원들과 청년 당원들이다. 술자리가 끝난 뒤 연장자가 대리비를 챙겨주는 행위는 우리 정서상 오랜 기간 미덕과 배려로 통용되어 왔다. 대리비가 없어서 받은 것도 아닐 테고, 김 지사 또한 무슨 거창한 대가를 바랐다면 식당 CCTV가 뻗어 돌아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소액을 낱알이 나누어 주는 어리석은 짓을 했겠는가. 취기를 빌린 '정서적 배려'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부적절함을 자각하고 이튿날 즉각 회수한 정황은 최소한의 정상참작 사유가 되었어야 한다.

더 분노스러운 점은 민주당의 이중잣대다. 그간 민주당은 타 지역 단체장 후보들의 술한 비위 의혹에는 얼마나 관대했는가. 부

동산 투기 의혹이나 각종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타 지역 후보들에게는 '무죄 추정 원칙'과 '사법부 판단'을 앞세워 공천장까지 쥐어준 사례가 수도룩하다. 심지어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도 관용을 베풀던 민주당이다. 그런데 유독 전북에서는 68만 원이라는 사안을 두고 단 하루 만에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것이 민주당이 외치는 공정인가, 아니면 만만한 전북을 향한 특정 계파의 '길들이기'인가.

형평성 잃은 이중잣대 전북은 제물인가

민주당에게 전북은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인가. 도민들이 선택한 도지사를 중앙당 지도부가 하룻밤 새 낙마시키는 행위는 175만 전북도민의 주권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오만한 처사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 가장 유력한 우리 지역 후보를 '꼬리 자르기' 식으로 내던진 것이라면, 이는 전북 정치를 중앙 정치의 방패막이로 쓴 비겁한 행태다. 도지사의 행정력과 비전은 외면한 채, 단 한 번의 경솔함을 빌미로 전북의 리더십을 해체한 처사를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북의 미래가 멈춰 섰다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초기 안정화와 새만금 예산 복원 등 한시가 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현직 지사가 당적을 잃고 범죄자 프레임에 갇힌 상황에서 국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리 만무하다. 민주당의 성급한 결정이 전북의 미래를 인질로 잡은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투명하게 재조사하라. CCTV 영상 하나에 기대어 '정치적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돈의 성격과 회수 과정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했다. 68만 원 대리비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공의(公義)가 아니라 거대 정당의 오만한 횡포다.

김관영 지사 역시 도정 수장으로 오해를 살 행동을 한 실책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과(過)에 대한 책임은 정당의 편주의적 기류가 아닌 법적 절차와 민심의 심판에 따라 물어야 한다.

전북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닫혀버린 민주당의 문이 전북의 자존심마저 닫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설

현대차그룹의 속도전, 새만금의 미래 앞당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 규모의 새만금 투자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신속히 체결한 것은 잠재된 지역경제와 국가 미래산업에 동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투자 발표 한 달여 만에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한 이번 행보는 대기업 투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속도감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실행 의지를 입증한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과 IBK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총출동했다. 이들 기관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해당 사업이 지닌 전략적 중요성과 파급력을 방증한다.

특히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협의회의 '1호 사업'으로 선정된 점은 새만금 프로젝트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산업구조 전환의 시험대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청사진 역시 주목할 만하다. 로봇 제조와 부품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대규모 태양광 발전, 그리고 AI 수소 도시까지 이어지는 미래 신산업 밸류체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다. 이는 연구·생산·에너지·도시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 혁신 모델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 로 탈바꿈시킬 잠재력을 지닌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민관 합동'의 긴밀한 협력 구조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금융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역할을 확장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 역시 전담 조직 신설과 정부 태

스크포스 참여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의지와 정부의 정책 지원,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초대형 프로젝트는 현실이 된다. 이번 협약은 그 모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이 가진 입지적 강점도 재조명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과 항만·공항·철도가 결합된 트라이포트 물류망, 그리고 신도시 인프라는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첨단 산업 투자가 더해지면, 새만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

물론 과제도 없지 않다.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기반 마련 등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그러나 이번처럼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이러한 난제 역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형 산업 생태계 구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기회다.

현대차그룹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은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불확실성이 큰 시대 일수록 투자는 늦출수록 비용이 커지고 기회는 줄어든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새만금 투자사업은 속도와 규모, 그리고 비전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실행이다.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때,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현대차그룹과 정책금융기관의 이번 결단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용화사미륵불입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석조, 불상  
-지정일 - 1999년 7월 9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 부안군 행안면  
          역리 336-1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제2호) 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6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레스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봄밤의 회상 / 이 외수

밤 새도록 산문시 같은 빗소리를 한 페이지씩 넘기다가 새벽녘에 문득 봄이 떠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네 내 생애 언제 한번 꽃밭들 날개짓소리 어지러운 햇빛 아래서 함박웃음 가득 베어물고 기념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 본 적이 있었던가 돌이켜 보면 내 인생의 풍경들은 언제나 흐림 젊은날 만개한 벚꽃같이 눈부시던 사랑도 끝내는 종식되고 말았네

시인 약력 : 1946년 경남 함양 출생. 춘천교육대학교를 중퇴했다. 1975년 중편 '훈장'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정식 등단했다. 선

모든 기다림 끝에 푸르른 산들이 허물어지고 온 세상을 절망으로 범람하는 황사바람 그래도 나는 언제나 필력거리고 있었네 이제는 이마 위로 탄식처럼 깊어지는 주름살 한 사발 막걸리에도 휘청거리는 내리막 어허,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네 별로 기대할 추억조차 없는 나날 속에서 울해도 속절없이 봄은 떠나가는데 무슨 이유로 아직도 나는 밤새도록 혼자 필력거리고 있는지를

화(仙畵)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화가로서의 경력도 있다. 소설 '훈장'과 시집으로 '꽃밭 술잔 나비'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제2호) 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전북의 곁에서 전북의 이야기를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구독 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 완주 대승한지마을



## K-문화 열풍 타고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부상

### 전통한지 제작과정 담은 언론 매체 촬영 이어져

최근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 전통문화인 완주 한지가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완주 대승한지마을(관장 남해경)은 한지 생산을 비롯해 체험과 전시, 한옥스테이 등을 운영하는 거점으로, 특히 전통 방식을 고수한 한지 생산지로 정평이 나면서 전통 한지 제작 과정을 촬영하기 위한 언론 매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SBS <굿모닝 대한민국> 제작진이 대승한지마을을 찾아 전통 한지 제작 과정과 체험프로그램, 한지 장인의 삶 등을 1박 2일 동안 촬영·방송했다. 제작진은 완주 한지의 제작·활용 과정을 집중 취재했다.

또한 3월에는 수원 소재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설 영상 전시를 위해 전통 한지 제작 과정을 3일간 촬영했으며, 해당 영상은 향후 기획전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방송에서는 들판에서 다나무를 채취하는 과정부터 삶고 곱질을 벗기는 과정, 다시 삶아 불순물을 제거해 닥죽을 만드는 과정, 이를 이용한 한지 제작과 건조 과정, 한지 장인의 삶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전통 한지 제조 방식인 '외발뜨기' 공정이 집중 조명됐으며, 한지 공예품 제작 과정과 소비자 반응도 함께 담겼다.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통 한지 제작 방식의 정교함과 우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승한지마을의 명성은 해외 학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일본 중부대학교 학생들과 말레이시아 국립대학 UKM(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의 교수 및 학생들이 방문해 자국 전통 문화 시설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UKM 마즐란 교수팀은 대승한지마을의 전통 한지 제작·체험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대승한지마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한지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한지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글로벌 전통문화 자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승한지마을은 전통 한지 제작과 체험을 중심으로 전시, 한옥스테이 등을 운영하며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국가문화유산주간' 프로그램에 선정돼 닥을 활용한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닥차, 닥백숙, 닥수육, 닥칼국수 등을 선보여 방문객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에는 생활사 전시장을 리모델링해 청년 작가와 대학생을 위한 전시 공간을 조성했으며, 전통 한지 생산 기반 강화, 닥을 활용한 식품 개발, 다나무 성분 분석을 통한 기능성 연구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한옥스테이를 결혼식과 가족 행사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IMSIL-GUN  
임실군

천만관광  
명품도시  
이제임실